자전거동호회 '전주 페달질' 지역사회 나눔 실천

전북도지사배 연합라이딩 우승상품 백미 30포,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자전거동호회가 연합라이딩대회 우승상품을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동호회 '페달질'(회장 허성국)은 지난 15일 부안에서 개최된 '2018 전북도지사배 연합라이딩'에 참가해 단합된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우승상품으로 받은 백미 30포를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전주 페달질은 매년 '바이크 아카데미' 과정을 열어 전주시민들에게 자전거에 관한 기초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 문화조성에 힘쓰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허성국 회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종이박스를 모아 어렵게 사는 노인 분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봤다."면서 "지속적인 자전거동호회 활동과 더불어 회원들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금번 기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복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자전거동호회 '페달질'(회장 허성국)은 지난 15일 부안에서 개최된 '2018 전북도지사배 연합라이딩'에 참가해 단합된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우승상품으로 받은 백미 30포를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순창경찰서, 남계자율방범대원과 협력치안 월례회

순창경찰서 (서장 김태형) 남계파출소는 17일 남계자율방범대원 20명과 협력치안 월례회를 가졌다.

월례회에서 정정섭 남계파출소장은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등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역 안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탄력순찰과 공동체치안을 연계하여 "방범 취약지역 순찰활동 시 청소년 선도활동, 여성안심귀가가 등 야간 방범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찰시 탄력순찰지역 요청 시 인터넷 순찰신문고를 통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자율방범대 이정만 대장은 "경찰업무에 적극 협력은 물론 자율봉사의 취지에 맞게끔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장수경찰서, 어르신 식사배식 봉사활동

장수경찰서(서장 총경 정재봉)에서는, 18일 오전 장계 문예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70명을 위해 무료식사배식을 도와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봉사활동은 경찰서장, 장계파출소장 등 경찰관 10여 명이 참여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배식하는 등 도움을 드렸다. 또한 준비해간 딸기와 두유 등 후식을 나누어 드리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정재봉 경찰서장은, 봉사활동을 하며 "장수는 지역인구 대다수가 노인층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야 우리 경찰이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교통 등 장수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연구하고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수=고판호기자

무주장로교회 맛나봉사단 사랑의 밑반찬 나눔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진옥) 주관하에 매월 2회 무주장로교회 맛나봉사단(회장 문옥순)이 무주군관내 소외계층 80세대에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장로교회 맛나봉사단은 18일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세대에 장조림,멸치볶음,김치등 밑반찬을 조리하여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이명주) 적상면 5세대,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허영범) 설천면 14세대,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지사장 박병철) 부남면 12세대, 사회보장협의회 (회장 오용식) 안성면 12세대, 개인봉사자(이상철) 무풍면 13세대, 어머니봉사단(전희영) 무주읍 24세대등 관내 기관 기업과 연계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생활에 불편함, 건강상태 안부를 확인하는등 관내 독거어르신들과 저소득층세대의 정서 지원도 병행하며 더불어 함께사는 무주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영원면, 면민의장 다복장에 박성희씨 선정

영원면은 지난 16일 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장 전병수)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 동의로 올해(제14회) 면민의장 다복장에 박성희(31, 여)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14회 영원면민의 날 및 제21회 면민체육 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면민의 장 선발 대상자에게는 부상과 감사패 등이 수여된다.

영원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명랑 운동회와 시립국악단 공연, 면민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8년 국제결혼을 통해 영원에 정착한 박성희씨는 베트남 출신이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을 화목하게 일구며 고령인 시어머니(77)를 정성껏 모시고 있고, 1남 1녀의 자녀를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워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청문실, 아름다운 동행 365일 비위예방 시책 추진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지금처럼 신뢰받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직원들의 소소한 일탈행위로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아름다운 동행 365일 테마 지정 비위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원의 소소한 일탈행위는 주민에게 실망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어 건전한 문화조성 및 체험을 통해 자정분위기를 띄워 의무위반행위를 차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문감사실은 계·팀별, 소그룹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의무위반 제로화 다짐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경찰서,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 교육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17일 김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김제시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전개했다.

2018년 현재 김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6명중 보행자 사망자가 4명(66.7%)으로 보행자 사고가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21명의 교통사망자중 7명(33.3%)이 보행자로 매년 보행자 사망사고 점유율이 매우 높게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협회 회원 및 시민(50~70대)들을 대상으로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 교통안전 수칙을 전달했으며 최근 시행하고 있는 '차 조심 운전 조심! 부모님 안부전화 캠페인'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등 9. 28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박훈기 김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람 먼저! 사람 중심'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보행자를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캠코더 단속, 현장 단속 등도 병행한다고 전했으며,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